



# Venice Biennale 2009 A league of their own

오는 6월 7일 제53회 베니스 비엔날레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큐레이터인 주은지를 선정했다. 주은지는 미국 LA에 있는 레드캣(REDCAT) 갤러리의 창립 디렉터이자 큐레이터였으며 현재 뉴욕 뉴 뮤지엄의 교육, 공공 프로그램 큐레이터이자 키스 헤어링 디렉터다. 주은지는 한국관을 개인전으로 기획했으며 초대 작가로 양혜규를 선정하였다. 양혜규는 역사와 길상, 일상의 경계를 가늠이라는 주제를 탐구해온 베를린 베이스의 설치미술 작가다. 이례적으로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의 활동이 더욱 활발한 커미셔너와 작가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책임지게 되었다. 이들이 한국 미술의 현재를 얼마나 정확하게 그려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뉴욕과 베를린에서 기인하게 이뤄진 인터뷰를 풀어낸다.

## Commissioner \_ Eungie Joo

**The Galleria** 당신의 직업을 간단히 설명해달라. 큐레이터, 커미셔너로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Eungie Joo** 현재 뉴 뮤지엄에서 공공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커뮤니티와 학생, 일반인들을 위한 투어와 같이, 공연 등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다. 한국과 유럽, 역사와 문화의 갤러리와의 교류 또한 담당한다. 이번 비엔날레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커미셔너 제안을 받았고 한국관을 위한 전시 전반에 걸친 기획과 운영을 맡았다. 작가 선정부터 전시장 디자인, 프래젠테이션, 펀드 레이징, 전 세계 아트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와 전까지 거의 모든 일이 해당한다. 요즘은 하루에 수십 통의 국제전화와 수백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고, 한 달에 10편 이상 비행기를 타기도 한다.

**The Galleria** 그렇다면 뉴 뮤지엄의 큐레이터로서 일하는 것과 비엔날레를 위한 커미셔너로서 일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Eungie Joo**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 대답인 것 같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그 유명세만큼이나 엄청난 영향력과 스포트라이트를 가진 국제 행사다. 비엔날레를 위해 커미셔너로 일하는 것은 큐레이터로서 한층 더 독립된 자유를 갖는 것이다. 뉴 뮤지엄에서는 완벽하게 내 아이디어만으로 전시를 기획하는 일이 없지않아 공공 프로그래머라는 제한된 영역 때문에 비엔날레에서는 모든 게 내 손 안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작품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전시 자체의 문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The Galleria** 이번 비엔날레를 계기로 큐레이터로서의 입지도 상당히 높아졌겠다. **Eungie Joo** 글썽... 지금 당장은 커미셔너로 선정했다는 사실이 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아무것도 완성된 것이 없으니깐. 모든 건 비엔날레가 끝나야 알 것 같다. 아마도 지난 7년 동안 끊임없이 전 세계 작가들과 교류한 덕분에 아닐까.

**The Galleria** 한국관 최초의 해외파 커미셔너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텐데... **Eungie Joo** 한국인이 아닌 커미셔너가 주는 이점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지난 광주 비엔날레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게다가 나는 내 자신을 결코 외국인 커미셔너라고 여기지 않는다. 한국에 머물러 싶지 않고,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라는 특정 신분에 대한 해명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라 생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당화하면 나는 지난 12년간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지속적인 리서치를 해왔다. 같은 지식 또한 갖고 있고 자주

한다. 기근은 뉴욕 소시보다 서울에서의 정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을 정도다.

**The Galleria** 통시대 한국 미술을 보여줄 쇼케이스가 될 '한국관'의 의미를 쇼케이스라, **Eungie Joo** 양혜규 작가와 자신주에도 한국에서 연다. 여실 천 중국을 다나오고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숲 기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양혜규의 작품 3개가 완성되었고 거기엔 조각과 설치, 비디오 작업이 포함돼 있다. 모두 이번 비엔날레에서 처음 선보이는 것들이다. 이에 막 커릴로 그 작업을 마쳤고 현지에서는 기존의 언어적인 공간 배열과 가벽 등을 이용해 '별 비무가' 작업이 현상이다. 지난 12년간 계속되었던 비엔날레 건축물의 복잡한 구조가 양혜규 작가의 작품과 전혀 맞지 않는 판단에서다. 이어 지금쯤 작품들이 베니스에 도착해 코디네이터의 손을 거치고 있을 것이다. 이번 비엔날레에 출품된 양혜규의 작품은 '압축' '응축'이라는 의미의 타이틀 <Condensation> 아래, 같은 공간, 같은 시점에서 만나는 서로 다른 개인적 감각이 충돌 없이 교차하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주변 온도와 변화에 따라 물이 움직이고, 그것이 의사소통을 대신해 아주 은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비디오 작품 역시 온도와 체온, 시각적 변화를 체험하는 개념적인 시인들의 동시적 대화를 그 주제로 삼고 있다.

**The Galleria** 양혜규 작가 선정에 대한 스토리가 궁금하다. **Eungie Joo** 작가 양혜규를 처음 만난 건, 2004년 부산 비엔날레 때였다. 그 후 2006년 개인전 (사중 30번자를 통해 상당히 발전된 대화가 오갔고, 그때 미술에 대한 서로의 이성과 고집이 깊어진 듯하다. 처음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를 제안 받았을 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양혜규 작가를 가장 먼저 떠올랐다. 몇몇 작가들을 리스펙트해 올린 바, 비디오이지만 그 후 전시장이 될 장소를 직접 돌아보면 시 양혜규 일인 체제에 대한 확신이 높아졌다. 그녀는 현대미술 관객과의 대화를 끊임하는 작가다. 양혜규의 작품은 상당히 어렵고 진지하면서도 순수하다. 거기에 시간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미묘하고 복잡한 정서적 체험을 소재로 하고 있다. 작가 스스로 자신을 불안정한 상태 속에 남겨두고 공격이 그 안에 들어오길 기다리는 식이다. 절대 필요하거나 나서지 않는다. 서서히 침몰이 생기고 답을 찾는 과정을 거치면서 관객들은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된다. 현대미술, 특히 개념미술이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The Galleria** 당신의 오해인 타이틀 주드 2009년도의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참가한 작가다. 요즘 오해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궁금하다. **Eungie Joo** 오해의 나는 작품만큼 따지고 보자면 확연히 다른 취향을 지니



고 있다. 그럼에도 내가 현대미술에 몰입하게 된 데에는 오빠의 영향이 가장 컸다. 현대미술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접근 방법은 분명 오빠에게서 배운 것이다. 요즘도 오빠는 비엔날레를 위한 설치물 디자인과 프로덕션, 소소한 정보까지 함께 공유한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나에게 귀중한 재산이다.

**The Galleria** 인류학을 전공하고, 예술 쪽에 몰입하게 된 동기가 궁금하다. 큐레이터로서 꾸준히 외국 작가, 특히 제3국 작가들에게 관심을 보인 이력도 한 몫이 많다. 어떤 연관이 있는가? **Eungie Joo** 듣고 보니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인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기 전엔 아프리카 디아스포라(Diaspora, 바빌론 유배 후 떨어진 유대인들의 이산 현상)를 연구했으니까. 그 당시 미국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갖가지 인종적·정치적 이슈를 좋아했던 것 같다. 내 관심사가 정치에서 문화 쪽으로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현대미술에 이르렀고 분야는 달랐지만 어떤든 그 내용이나 주제가 한결같이 미국 바깥쪽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와 땀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생각이 쪽 한쪽 방향으로 흘렀다고 해야 할까?

**The Galleria** 당신의 지적 호기심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큐레이터라는 직

업이 늘 '좀 더 나은 작업' '새로운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일인데 그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Eungie Joo** 다행히도 내가 맡은 공공 교육 프로그램은 아주 창조적인 에너지가 들끓는 분야다. 토론, 강연, 페포먼스, 공연, 비디오 상영, 그룹 투어 등 늘 새로운 이슈가 오가는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다. 최상의 얼티트 그룹이 보이는 미술 토론부터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비록 2~3시간, 혹은 2~3일이면 끝나는 이벤트가 많지만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지적 에너지는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도 않는다. LA의 레드 썬 갤러리에서 일하던 5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오로지 전시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전시라는 특정 영역 안에서 아주 철학적이고 심미적인 생각 속에 잠겨 살았던 것 같다.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좀 더 외향적이고 상호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때 발전시킨 생각들이 지금 여러 공공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특히 이곳 뉴 뮤지엄은 현대미술의 이해를 한층 진보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겐 늘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 얼마나 행운인지!

interviewer J Yu Jung(이국 동신진) photographer Kim Min Keon



## Artist \_ Haegue Yang

**The Gallery** 베니스 비엔날레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Haegue Yang** 한국관 작업은 3점인데 2점은 완성해서 베니스로 보낼 상태다. 비디  
오 작업은 에디팅 중이고, 한국관 전시 이외에 본 전시인 아스날레 창고물의

기획전에도 참여하는데, 이 작업은 2007년 여름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준비  
할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 한국관에 대해 주은지 큐레이터와 협의를 시작한  
것이 작년 11월이었다.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작업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 어

했다면 어려운 숙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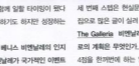
The Galleria 이례적으로 한국에 상주하지 않는 커미셔너와 작가가 선출되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해달라. **Haegue Yang**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다. 주은지 씨와 전시를 꾸민 것은 처음이지만 그녀가 내 전시를 맡아 본 상태였고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다. 나는 누구와 일하느냐를 좀 따지는 편인데 주은지 큐레이터는 일해보고 싶은 사람이었다. 주은지 씨는 외국에서 잘 알려진 큐레이터라는 단순한 이해와 논리를 넘어서서 풍부한 큐레이터가 아니다. 이해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참여적이며 지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그녀가 뉴 뮤지엄에 부임하기 전, 레드DOT 뮤지엄에서 일했는데 그곳을 특징이 강한 전시장으로 만든 주인공이다. 아주 센 색깔을 지닌 큐레이터이다. 사실 한국관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는데 주은지 씨가 설득했고 거기에 설득당한 것이다. 주은지 씨가 우리가 함께 일할 타이밍이 맞다고 한 말에 동감했다. 작가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일하고도 하지만 성장하는 데 회의도 있다.

The Galleria 브라질이나 튀르키예 비엔날레에 비해 베니스 비엔날레의 인지도가 높는데 기대감이 아예가 무겁겠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국가적인 이벤트로 위상이 높아졌다. **Haegue Yang** 부담감은 전혀 없다. 형식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다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행이나 이런 것들은 관심 없다. 작가로서 도달해야 하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다. 미술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제 1순위다. 상에는 별 관심이 없다. 상관할 일도 아니고.

The Galleria 단일 작가로 전시장을 꾸미는 데 대한 부담감은 없는지. **Haegue Yang** 솔로 프레스턴 테이션이 더 효과적이다. 일본관, 독일관, 캐나다관 등 대부분이 솔로 전시를 연다. 한국관은 물리적으로 전시장 크기도 크지 않고 그룹전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The Galleria 설치미술은 좀 어렵다. 관객들의 이해를 바라는 편인가 아니면 설명을 덧붙이는 편인가. **Haegue Yang** 설치미술은 장르처럼 들리지 않죠. 장르가 아니다. 설치미술이라는 것은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근대의 형식적인 현상들을 통용그린 이름에 불과하다. 태생적인 난해함이 있다. 편의상 붙여진 이름에서 오는 혼란이 있다. 통사관에 있어는 시간이 현상들을 같은 시대에 이해하기 어렵듯이, 통시대 미술 역시 지금 가장 급진적인 미술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쉬운 수가 없다. 그래서 중개(Mediation)가 필요하다. 작가는 철저하게 급진적이고 미술적인 확신을 하는 사람이다.

The Galleria 한국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인가? **Haegue**



**Yang** 한국이라는 사회나 언어는 가장 잘 아는 만큼 가장 잘 이해가 된다. 한국에서 전시를 할 때 특별한 고려나 느낌이 없지 않을 수 있다. 인천의 사동에서 열린던 (사동 30번지)라는 전시의 경우, 어떤 나라에서라도 전시는 할 수 있었겠지만 개인적·사회적인 이유로 그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다. 말연설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말 것인가 기교에 섰을 때 기울어야 할 때였다. 한국에서의 작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유럽에서 전업 작가로 시작한 케이스라 한 번에 돌기는 것은 무리가 따르나. 나는 것은 설치만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계획, 생각, 컨셉트, 상황이 갖춰져야 할 것 같다. 한국에서 작업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전셋집을 구한 것. 두 번째 스텝은 화랑과 일하게 된 것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즉 기반이 필요했다. 국제갤러리와 일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세 번째 스텝은 현실문화연구 출판사와 책을 낼 예정이다. 교과서적인 자료 집으로 많은 일이 실려 있다.

The Galleria 비엔날레 이후에도 전시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Haegue Yang** 베니스 비엔날레가 큰 전시라 작품 4점을 한꺼번에 하는 일이 중요했다. 9월 말에 미니애폴리스 워커아트센터

(Walker Art Center)에서 개인전을 만든다. 뉴욕현대 미술관(MoMA) 부큐레이터인 정도련 씨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베니스 비엔날레는 신작만 내지만 이 전시에는 기존 작품으로 꾸민 회고전이다. 기존 작품으로 전시를 꾸미게 되면 나나 큐레이터나 여러 말을 할 수 있다. 전시의 문맥과 토론에 중심잡을 수 있다. 이로써 전반기에는 신작에 초점을, 하반기에는 회고전을 통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완성도는 높은 편이 될 것 같다. 내년 가을에 이트산재 미술관에서 개인전에 열릴 예정이라 그 이후에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The Galleria 짙은 아이라이너와 무채색 의상이 달달해 보이면서도 인상적이다. **Haegue Yang** 작정한 것은 아니다. 머리를 자르고 나니 사람들이 웃어 달라고 하더라. 미러카피 길이가 허리까지 왔었는데 어느 날인가 발작(발) 일어나 1cm 길이로 잘라낸 적도 있다. 남들을 의식하지 않아서 이상적인 계산이 없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가도 마찬가지일 거다. 통발적으로 감성적인 팬이라 미리 예상하고 작정하기보다는 저 지른 후에 되돌아보는 편이다.

Interviewer Choua Seri photographer Sabine Reimle(photo)